

황금 공간을 지키는 금닭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금계산 기슭에 있는 마을에 팡치용이란 노인이 살았습니다.

팡치용은 눈처럼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채 날마다 사냥을 다녔습니다. 그는 사냥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일대에서는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팡치용은 늘그막에 혼인하여 젊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딸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나 버렸습니다.

딸의 이름은 잉쯔였습니다. 잉쯔는 할아버지 밑에서 사냥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처녀로 성장해서는 아버지 못지않게 사냥을 잘했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금계산에 올라 사냥감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굴속에 꼭꼭 숨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다니다 보니 어느 새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엽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딸이 엽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허탕을 쳤으니 산에서 자고 내일 사냥을 다녀요. 사냥의 명수라고 소문난 아버지가 빈손으로 산을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허허, 그렇구나. 네 말대로 하자.”

“참! 이 금계산에 금닭이 살고 있다면서요?”

딸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빛내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장주문학상, 정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지만 금닭이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금닭이 울어야 날이 밝거든. 우리 마을의 닭들은 금닭이 울어야 따라서 울어 새벽이 되었음을 알린단다.”

“그렇군요. 금계산에서 금닭이 사라지면 영원히 날이 밝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렇지. 금닭이 울면 날이 밝고, 금닭이 나뭇가지에 오르면 한밤중에도 해가 뜬다니까. 그 소문이 사실일 거야.”

“아버지, 금닭이 산 속에 살면서 황금 곳간을 지키고 있다면서요?”

“그런 소문도 있지. 그래서 욕심 많은 부자나 벼슬아치들은 금닭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산 속을 뒤흔단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닭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 그 사람들 손에 금닭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금닭이 없으면 날이 밝지 않아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사냥을 다닐 수도 없고…….”

“당연하지. 금닭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보물이거든.”

“오늘 밤 산에서 자고,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금닭을 찾아 나서야겠어요. 금닭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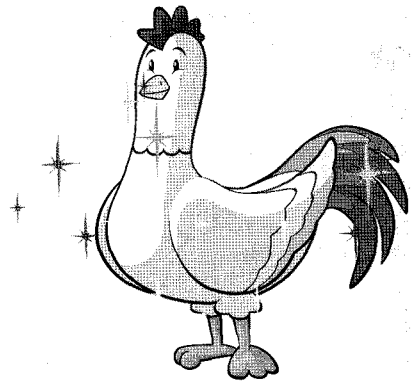
“좋은 생각이다. 산꼭대기에서 금닭의 울음 소리가 들려오니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예, 아버지.”

아버지와 딸은 어두운 숲을 지나 산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취명굴을 잡고 험한 벼랑길을 한참 올라가자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평평한 곳을 찾아 피곤한 몸을 눕



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올 때까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깨어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숨을 죽인 채 금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금빛이 새어나 오더니, 날개 치는 소리와 함께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끼오!”

“아버지, 금닭이에요!”

아버지와 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금빛이 찬란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눈부신 금닭이 나뭇가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꼬끼오!”

아버지와 딸은 금닭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금닭을 두 눈으로 푹푹히 보다니,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금닭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날개를 펴고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바쁘게 사라졌습니다.



금닭이 앉아 울던 나무 아래에는 깃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깃이었습니 다.

딸은 깃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닭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 요. 너무 멋진 깃이에요.”

“그렇구나. 이 깃만 있으면 한밤중에도 방에 등불을 켜지 않아도 되겠어.”

팡치용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어두운 방에 깃 을 두었더니 방 안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등 불을 밝히지 않아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 습니다.

팡치용 부녀가 금닭을 찾아내 깃을 주워 왔다 는 소문은 삼시간에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깃을 구경하려고 팡치용네 집으로 몰 려들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욕심 많은 군수가 백성들을 다스 리고 있었습니다. 군수는 팡치용이 금닭을 찾 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금닭을 찾아냈다면 금닭이 지키는 황금 곳 간도 찾을 수 있겠구나. 이 보물을 왕에게 바치 면 나는 높은 벼슬을 얻겠지? 아!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군수는 병사들을 데리고 금계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군수는 팡치용네 집을 찾아가 호통을 쳤습니 다.

“네 이놈! 금닭을 찾아냈으면서 혼자 꿀꺽 해? 금닭은 나라의 보물이다. 당장 내놓이라. 안 그러면 네놈의 목을 베겠다.”

팡치용이 말했습니다.

“나는 금닭을 갖고 있지 않소. 산 속에 갔다가 금닭의 깃을 주웠을 뿐이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금닭을 숨겨 놓고 시치미를 떼? 여봐라, 저놈을 관가로 끌고 가라. 본패를 보여 줘야겠다.”

군수는 병사들을 시켜 팡치용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형틀에 묶어 엉덩이가 터 지도록 곤장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팡치용은 금닭의 깃을 주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군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금닭을 잡아다 놓은 것 같진 않아. 집 안을 샅샅이 뒤져도 금닭이 발견되지 않았잖 아. 그래도 금닭의 깃을 주웠다면 금닭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군수는 다시 팡치용을 다그쳤습니다.

“네놈이 금닭을 잡지 않았다면 산 속 어디에 금닭이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서 말해 라. 금닭이 있는 곳을 털어놓으란 말이다.”

팡치용은 군수에게 금닭이 있는 곳을 알려주 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닭이 있는 곳을 알려주 었다가는 금닭을 잡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계산에 날이 밝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팡치용은 금닭이 있는 곳을 모른다고 했습니 다. 몽둥이로 개 패듯이 때리고 주리를 틀어도

팡치용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팡치용의 딸인 잉쯔를 잡아들여 심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다닌다지? 금닭이 금계산 어느 곳에 있는지 털어놓아라.”

“모릅니다. 금계산 금닭은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짐승인데 어떻게 있는 곳을 알겠습니까?”

“네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구나. 좋다. 따끔한 맛을 보여 주마.”

군수는 잉쯔에게 몽둥이찜질을 하고 온갖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잉쯔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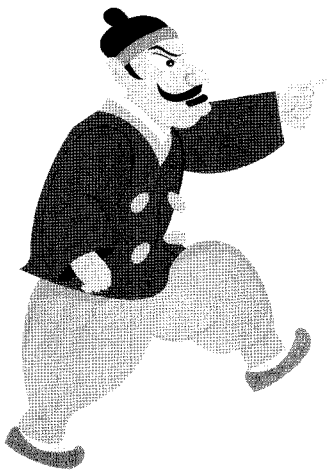
군수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끌어다 앉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잉쯔야!”

아버지와 딸이 애타게 서로를 부르자 군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참 미련하구나. 금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면 얼른 풀어 줄 텐데, 왜들 사서 고생을 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털어놓아라. 금닭이 어디 있느냐?”

군수가 다그치자 잉쯔는 군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군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 계집을 끌고 가당장 목을 베라!”

팡치용이 눈을 치켜뜨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 하느냐?”

“네놈은 당장 죽을 수가 없지. 네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금닭을 찾으라고……. 딸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어서 금닭이 있는 곳을 털어놓아라.”

그 때였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워지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수는 팡치용과 그 딸을 풀어 줘라!”

“두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마을 사람들이 관가로 몰려와서 팡치용 부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쟁기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군수는 성이 나서 외쳤습니다.

“저런 못된 놈들! 감히 나한테 반항해? 팡치용! 너는 어서 금닭이 있는 곳을 말해라. 안 그러면 네놈과 딸년을 죽이고, 너와 한패거리인 마을 사람들을 죄다 형장으로 보내겠다.”

팡치용은 괴로운 듯 신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리고 딸아이도 살려야 한다.”

팡치용은 눈을 감았다가 뜨고 군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당장 풀어 주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럼 금닭이 있는 곳에 직접 데려다 주겠소.”

“하하하!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좋다. 네 말대로 할 것이니 어서 앞장서라. 금닭을 빨리 보고 싶다.”

군수는 팡치용을 앞세우고 판가를 나섰습니다.

팡치용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팡치용이 달아날까 봐 병사들을 앞뒤로 따르게 했습니다.

팡치용은 군수 일행을 금계산의 벼랑길로 이끌었습니다.

군수는 숨을 헐떡이며 벼랑길을 올라갔습니다.

금계산은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팡치용은 군수 일행을 산꼭대기 근처에 있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의 다 왔소. 금닭은 이 숲 속에 있소.”

팡치용이 이렇게 말하자 군수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헤헤, 드디어 금닭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구나. 금닭을 찾으면 황금 곳간도 차지할 수 있겠지?’

군수는 싱글벙글하며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속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햇빛 한 점 스며들지 않아 더듬더듬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마쯤 걸어가자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금닭이 있구나.’

군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빛을 향해 몇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앞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는 팡치용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 어디 금닭이 있느냐? 네놈이 나를 속여…….”

팡치용은 대답 대신 군수의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함께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으아악!”

팡치용은 이렇게 군수를 데리고 저승길로 떠났습니다.

한편 팡치용은 군수 일행과 금계산을 오를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금계산에 금닭이 울면
날이 흰히 밝아오고,
금닭이 나뭇가지에 오르면
한밤중에도 해가 뜬다네.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읊조리며 금닭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